

# 광고주 63%,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광고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광고·홍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했다.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방송 경쟁력이 높아지고, 콘텐츠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광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광고주협회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과 보다 합리적인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10일간 200대 광고주(회원사)의 광고·홍보 임원 및 팀장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구글의 나쁜 광고 차단에 따른 영향 △유사언론행위 실태 등 광고·홍보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 광고 시장 활성화 예상, 올 하반기 시행 적절

먼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2.8%의 광고주가 중간광고 도입이 광고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8.2%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하며, ‘올해 하반기’(47.8%)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39.5%의 광고주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

입될 경우 광고집행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85.0%가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네이버도 구글과 같은 ‘나쁜 광고 차단’ 시스템 도입 필요

최근 구글이 지난 1년간 북미·유럽 지역에서 ‘나쁜 광고’ 차단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침입형 광고가 감소했고 이용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쁜 광고’ 차단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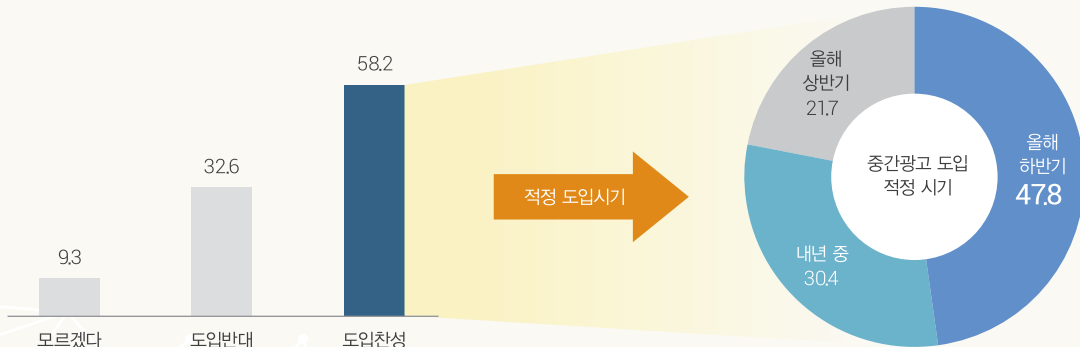
이에 국내 구글 사이트에서 ‘나쁜 광고’ 차단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실제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보다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건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86.5%의 광고주는 네이버도 구글처럼 나쁜 광고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인식하며, 협회가 앞으로도 나쁜 광고 퇴출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주협회는 지난해 광고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종료불가 광고 △팝업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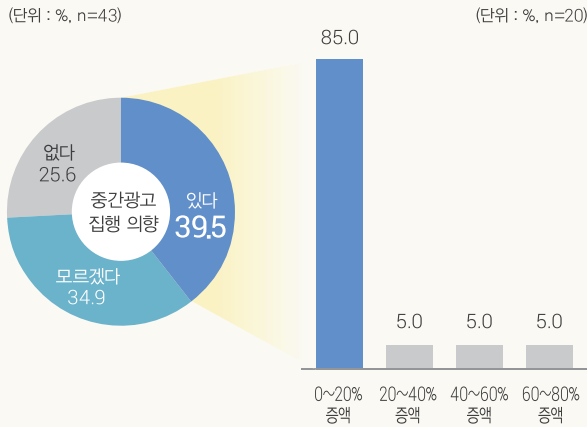
〈표 1〉 중간광고 도입 필요 여부 및 적정 시기에 관한 의견

(단위 : %, 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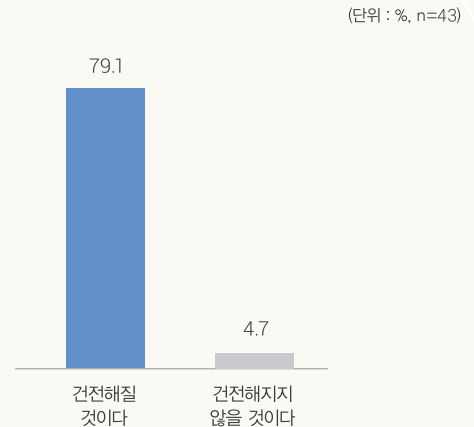
(단위 : %, n=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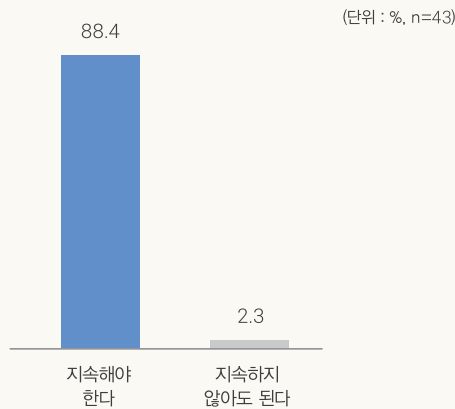
〈표 2〉 중간광고 집행 의향 및 증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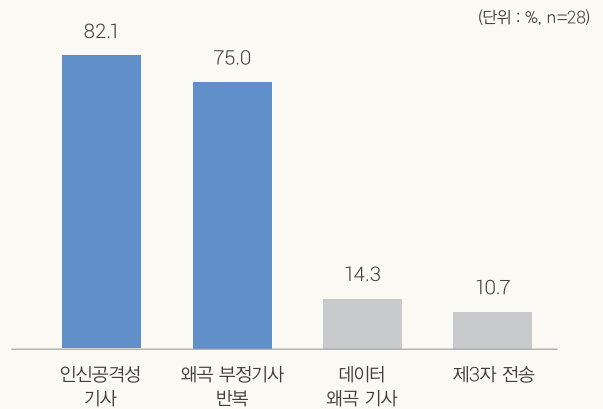
〈표 3〉 구글코리아의 나쁜광고 차단 시스템 시행 시 인터넷 사용환경 변화 여부



〈표 4〉 향후 협회의 나쁜광고 퇴출 운동 지속 여부



〈표 5〉 유사언론행위 기사 유형



△대형스티커 광고 △전체화면 스크롤러 광고 △자동재생 광고 △불법도박 광고 △성적인 내용 △마약·약물 광고 △인종차별·테러 광고 △신체를 이용한 광고 등 한국형 나쁜 광고 10개 유형을 발표한 바 있다.

### 광고주 63.4% '유사언론행위' 경험

한편 △기업 경영층 사진의 인신 공격성 노출 △기업 관련 왜곡된 부정기사 반복 게재 △사실과 다른 부정기슈와 엮은 기업 기사 △경영 관련 데이터 왜곡 △광고형 기사 등 유사언론행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의 광고주가 2019년 들어서도 유사언론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언론행위로 지목된 기사 유형으로는 '기업 경영층 사진·이름을 이용한 인신 공격성 노출 기사'가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관련 왜곡된 부정기사 반복 게재'가 75.0%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협회 광혁 상무는 “현재 사무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매체의 기업보도를 매주 분석하고 있으며, 악의적 표제어 남용 등 문제가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기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를 빌미로 부당한 광고·협찬 압박을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KAA** 김다혜 dahye@kaa.or.kr